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한국 순교자성당

2006년 12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경 읽기: 요한 1,6-8. 19-28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 성탄을 잘 준비하기 위해 대림시기 프로그램과 판공성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강의, 비디오 상영과 기도의 밤)
- 본당 30주년의 내적 준비로 새 성경 읽기와 성경문제 풀어보기
(성경 읽기표 참조)
-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93번(임하소서 임마누엘)

MEMO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제3장 친교의 원천이며 현현인 성체성사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요한 15,4)

19.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그들 ‘안’에 머무시는 방법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심오한 친교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요한 15,4) 이 심오한 상호 ‘일치’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지상에서 천상을 어느 정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가장 염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 생각하시던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에 대한 “끓주림”을 심어 주셨습니다(아모 8,11 참조). 이 끓주림은 그분과 충만히 일치할 때에 비로소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천상에서 맛볼 완전한 충족을 기대하며 여기 지상에서 하느님으로 ‘배부름’ 수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와 한 몸

20. 영성체에서 오는 특별한 친근감은 교회의 친교를 떠나서는 적절하게 이해될 수도 없고 완전하게 체험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저는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에서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성령을 보내 주시어 이러한 일치를 이루시고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체 안에 현존하심으로써 이 일치를 끊임없이 증진시키십니다. 성찬례의 빵 하나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했듯이, “빵은 하나이고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1고린 10,17).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사제로서 바치신 기도에서 말씀하신 최고의 본보기대로 교회를 하나의 친교로 세우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요한 17,21).

빛의 증언자 세례자 요한

요한 1,6-8. 19-28

세례자 요한의 출현으로 기쁜 소식의 공적인 선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세주의 오심을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파견되었습니다. 빛을 증언하러 왔다는 그의 말 속에서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줄 분, 곧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질문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엄밀히 답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의 시대를 열어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컸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희랍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윗 가문의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하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예언자가 죽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실려 올라갔다고 믿고 있었기에 주님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에 미리 파견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도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또 그들은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하고 묻습니다. 요한은 종말론적인 예언자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러한 예언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바로 그 예언자가 아닌가 하고 물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요한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알려야 할 중이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닦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꾼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그 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능력을 예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는 자신을 보내신 하느님의 목적과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똑바로 깨닫고 진리를 올바르게 볼 줄 아는 참다운 예언자였습니다.

나눔>

1. 우리의 삶 안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2. 우리가 가볍게 취급했던 이웃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채워짐이 부족한 마음들

채워짐이 부족한 마음들
완벽 하고픈 생각의 욕심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만은 완벽한 것처럼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합니다.
자신들만은 잘못된 것은 전혀 없고
남들의 잘못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남들의 잘못된 일에는 험담을 일삼고
자신의 잘못은 숨기려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아픔을 즐거워하며
나의 아픔은 알아주는 이가 없어
서글퍼 하기도 합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허물을 탓하고 험담을 입에 담는다면
남들도 돌아서면 자신의 허물과 험담이
머욱 부풀려져 입에 오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이 마음을 비우고
조금 덜 채워지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물러서는 여유로움으로
조금 무거운 입의 흐름으로
간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글 중에서 -

“빛을 낼 수 없거든 최소한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